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탄력 받나

### 군산시-전북대병원, 사업부지 매입 대해 협약 부지매입 지원 위한 재원으로 50억원 확보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7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군산시장(문동신)과 전북대병원장(강명재)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매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군산시가 대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16년 1월 백석제에서 사업부지를 변경한 후 전북대병원의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진전이 미비했으나, 군산시에서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 중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50억 원을 확보했다.

또 올해 정부 제1차 추경에서 8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북대병원에 기 교부된 국비를 포함해 사업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이 확보해 부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 군산시는 부지매입을 알리는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6~7월중에 마무리 한 후 8월부터는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부지매입 관련 공고는 일간지 신문 공고 후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소유자, 사업시행자(전북대병원), 전라북도에서 감정평가

가사 각 1명씩 3인을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 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민선6기 문동신 군산시장과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의 인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병원 건립의 불씨를 살려놓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클 뿐만 아니

라 시민들 사이에서 무성하게 퍼돌던 소문을 불식시키고 30만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군산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7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군산시장과 전북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매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군산시가 대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군산전북대병원 위치도.

### 익산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점검

익산시는 7일 산들강웅포마을에서 진행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현장에 둘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의 핵심인 체험관시설 신축 현장에 둘러보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산들강웅포마을은 기존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권역활성화센터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대규모 체험객을 수용하기에는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신축되는 체험관시설에 80석 규모의 세미나실, 음식체험관 및 11개의 힐링체험실(숙박 가능) 등이 조성, 그동안 유치하지 못한 대규모(100명 이상) 농촌체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농촌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주변 농촌체험마을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전북장애인교육협회, 공약·정책 점검

#### 군산시장 후보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열어

전북장애인교육협회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검증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협회 회원들이 직접 후보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자들이 간담회에서 밝힌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모두가 직영 설치 운영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 강임준, 민주평화당 박종서, 무소속 서동석 후보는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교육청과 협의 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생활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대응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강임준 후보는 시설을 벗어나기 전 완전한 자립생활교육 시행을 박종서 후보는 활

동보조서비스 내용 다양화를 서동석 후보는 장애인거주형태의 다양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내의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용경 후보는 장애특성에 따른 일자리 개발을 서동석 후보는 의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종서 후보는 의사 소통 전달체계를 구축을 강임준 후보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육협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시장 후보들에게 감사하다"며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장애인교육협회는 장애인차별해소와 사회적지립, 장애영유아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의 생애주기 교육과 인권, 자립 등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및 전문가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7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수당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6만15천원씩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기종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경익 복지관광공장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코레일 전북본부는 7일 전북서부 보훈지청 가족 20여명을 초청, 평화의 땅 DMZ로 떠나는 '통일열차 평화열차' 해피트레인을 운행했다.

### '통일열차 평화열차' 해피트레인 운행

#### 코레일 전북본부, 보훈지청 가족 초청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진준)는 7일 전북서부 보훈지청 가족 20여명을 초청, 평화의 땅 DMZ로 떠나는 '통일열차 평화열차' 해피트레인을 운행했다.

해피트레인이란 코레일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 등에게 기차여행을 통해 나눔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시행하는 코레일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코레일과 전북서부 보훈지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발전에 헌신한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차여행의 색다른 경험

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가유공자 20여명은 DMZ트레인을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 평화공원, 전망대, 제3땅굴 등을 관람하며 분단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남북철도의 연결과 평화통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김진준 전북본부장은 "평화열차 해피트레인 행사로 전북 보훈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이번 여행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민관협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펼쳐

익산시는 7일, IG생명과학 등 지역 단체들과 협업으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집수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을 거주자 중심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용안지역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와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환경정리, 화장실신축, 단열작업과 도배, 장판, 창문과 출입문, 싱크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IG생명과학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이수근)은 300여만 원 상당의 자재와 기구를 기증하고

20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현장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 용안면 새마을부녀회와 익산여성라이온스 회원 10여 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익산원광자활센터는 현대식 화장실 신축공사와 천장 보수공사 등에 적극 참여했으며, 용안면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민·관 협업의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박재우 주택과장은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서 복합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